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

### 남원시,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열고 기본설계안 공개

남원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밝혔다.

시는 27일 최경식 시장과 보건소장, 담당과장, 건축 설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남

원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고죽동 200-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1억 원(국도비 76, 시비 15)을 투입해 연면적 약2,000㎡(산모실 13실),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설계안은 지난해 10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제이엠디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축

사사무소장에서 공동 출품한 당선작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설계안에는 입구부터 산생아실의 공간과 동선을 분리해 감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한 가장 안전한 산후조리 시스템을 반영, 건물 중앙의 햇살 가득한 실내 정원은 산모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테라피실, 운동실, 프로그램실은 산모의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1층 로비와 2층 맘카페 공간은 높은 층고로 개방감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넓은 창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선여가를 볼 수 있다. 또 옥상 전망데크 등 외부와 연결되는 다양한 휴게 공간도 마련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12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산후조리원이 완공 개원하게 되면 남원, 순창, 임실 등 전북 동부권 지역 임산부들은 전주, 광주 등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해소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사진=남원시청 제공)

# 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신청접수

### 26억6400만원 예산 확보

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6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고, 저감장치 미개설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관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난해와는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톤 미만 차량)하며, 올해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6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하여도 추가 지원(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발효관광재단-6개 지역 업체, 관광산업발전 업무협약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 이하 관광재단)은 27일 순창군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 6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광재단이 지역 발전과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중

요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과 손 잡고 순창의 유명 관광명소를 홍보해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카페 가운을 비롯해 다래, 산술, 오늘, 자연다울수

록, 한정당 등 6곳으로, 관광재단과 지역업체 측은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대 및 홍보비용 절감으로 지역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관광재단은 순창발효테마파크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협약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 재개장

### 출렁다리·봉어섬 생태공원 3월 한 달간 입장료 무료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 관광지이자 임실군의 큰 자랑거리가 된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내달 1일 재개장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봉어섬 내부 시설 보강을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을 재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재개장 후 3월 한 달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가 무료로 운영된다.

두고 봉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한 옥정호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개선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요산공원과 봉어섬 생태공원의 사계절이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단계별로 경관꽃 단지를 조성하고, 쉼터, 탐방로 등 제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420미터의 기다란 현수교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사계절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봉어섬 생태공원은 지난해 3월 1일 정식 개장 이후 12월까지 41만여 명의 유료 관광객이 찾아 큰 인기를 끌었다. 앞선 2022년 10월 임시 개장 이후 45만여 명이 찾는 등 임시 개장을 알리는 홍보 프로모션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재개장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은 가뭄으로 물이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출렁다리 아래까지 가득 찬 물로 아찔함을 더하고, 호수 한 가운데의 봉어섬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군은 재개장을 앞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를 건너 봉어섬 생태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일반개인은 3천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3월 한 달간은 재개장을 알리는 홍보 프로모션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재개장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은 가뭄으로 물이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출렁다리 아래까지 가득 찬 물로 아찔함을 더하고, 호수 한 가운데의 봉어섬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군은 재개장을 앞

# 남원시,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우수 시군 선정

남원시가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

이 캠페인은 '나를 가치있게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남원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총 6억2,700만원을 모금하였다.

남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수상한 포상금 현안사업비 1천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금액은 저소득층에 물품 등을 구입해 지원할 계획이며, 모금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주거환경개선, 명절, 월동 난방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무료지원 '큰 호응'

순창군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지역 축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축산 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무료로 군에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검사를 신청을 빠짐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속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방문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소방서, 비상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임실소방서는 최근 의뢰계 집 단행동에 따라 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 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막기 위해 비상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 응급환자는 소방력의 공백으로 인해 생명이 큰 위험을 받게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비상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 금지"

순창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순창소방서는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등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